‘BDA 암초’ 6자회담 결국 휴회

北 김계관 “송금문제 해결되면 다시보자” 돌연 귀국

2·13합의 취약성 극복 과제…美 강경파 고개 우려도

BDA 북한자금 반환문제로 제6차 6자회담이 파행을 거듭하며 나흘째를 맞은 22일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통해 돌연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의장국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제6차 6자회담 휴회를 선언했다.

우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과정을 계속 진전시켜 간다는 데 동의했으며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베이징을 떠나 각각 귀국길에 오르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또 다시 파행 상태로 빠져들었다.

순항하는 듯했던 6자회담이 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이체 지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수로 주춤거리게 된 것이다.

지난 18개월간 발목을 잡았던 BDA 문제가 마지막 해결의 순간까지도 암초로 작용하면서 결국 제6차 6자회담의 휴회를 초래했다. ‘가장 이른 기회’에 갖기로 했을 뿐,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미국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BDA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전액반환’하는 결단을 이끌어낸 미국내 협상파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비정상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는 등 자칫 협상의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본국훈령’에 따라 본격협상을 거부한 김계관 부상 등 북한대표단이 ‘BDA 문제만 해결되면 현안 토의에 적극 임한다’고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있다.

또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을 재확인한 수확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마리 새처럼… 스위스 프로페셔널 파일럿이자 발명가인 입 로시가 오는 4월 제네바 국제 박명전시회에 출품할 제트연료 동력의 날개를 등에다 단 ‘퓨전 맨’ 프로젝트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켜 주겠다”

中 조선족 1천여명 사기 당해

중국 조선족 1천여 명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터넷 길림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부문에 등록한 섭외혼인(국제결혼) 피해자는 1천여 명이며, 피해액도 1억위안(121억원 정도)에 달한다. 현재 신문사를 비롯해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들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한국 측 브로커가 위장결혼 혐의로 잡혔거나 한국 측 파트너가 경찰조사시 위장결혼이라고 자수한 경우 그리고 이윤분배로 분쟁이 생기면서 서로 반목해 피해를 당한 것이 사기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중.한법률상담소 허귀철 소장은 “여성들이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브로커들은 이미 돈을 탕진해버렸거나 감금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설령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피고에게 지급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중지되기에 돈을 되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액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등록한 결혼신고를 이혼으로 해제하는 일. 중국법률상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한 출국수속은 물론 중국 내 재혼 신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커피 많이 마셔도 혈압 안 올라”

네덜란드 연구팀 남녀 6,400명 조사

건강한 사람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메디컬센터의 쿠노 위테르발 박사는 미국의 영양학전문지 ‘임상영양학 저널’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위테르발 박사는 남녀 6천400명(평균연령 40세)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커피 등 식사습관, 생활습관, 교육수준, 병력 등을 조사분석 한 결과 건강한 여성의 경우 커피를 하루 6잔 마셔도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10년 안에 고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시 ‘오너십 사회론’은 실패”

블룸버그 “모기지 파동이 직격탄” 보도

부시 미 대통령이 경제통치 이념으로 내세워온 이른바 ‘오너십 사회’ 논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 경제 근간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경제전문 정보서비스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다.

오너십 사회론은 부시가 지난 2001년 1월 1기 취임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첫 언급한 것으로 미국인이 의료보험과 연금 등에 개인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경제 기반을 굳건히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가진 자의 논리’라고 비판해왔다. /연합뉴스

‘힐러리는 독재자’

안티 악성 동영상 급속 유포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캠프가 악성 안티 동영상 유포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동영상은 지난해 중간선거 때 ‘선거혁명’이라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과시했던 유튜브에 등장, 힐러리 진영을 발칵 뒤집히게 하고 있다.

‘1984’라는 제목의 이 ‘안티(反) 힐러리’ 동영상 광고는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돼 온라인상의 ‘혐오 캠페인’ 논란에 불을 댕기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웰의 ‘빅 브라더’로 묘사

조회 100만건 돌파…캠프 발칵

문제의 광고는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년’을 토대로 애플 컴퓨터사가 만든 광고작품의 일부를 패러디한 74초짜리 동영상.

이 동영상에서 힐러리는 소설속의 독재자 ‘빅 브라더’로 등장하고, 아무런 생명력없이 유령처럼 공허한 표정을 한 대중들 앞에서 힐러리 의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계속 흘러나온다.

이때 어떤 여성이 도끼를 들고 군중들 사이로 뛰어들어와 스크린을 향해 던지고, 마침내 스크린이 깨지면서 밝은 빛이 섬광처럼 쏟아진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다. 2008년 선거는 1984년과는 다르다 ”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떠오른다.

힐러리를 독재자로 묘사한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조회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연합뉴스

美 의회-부시 정면충돌

하원, 백악관 증언 타협안 거부

칼 로브 등 핵심참모 소환 가결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21일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파문과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제시한 백악관 참모진의 비공개 증언 타협안을 거부하고 칼 로브 정치고문 등 핵심 참모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 의회와 백악관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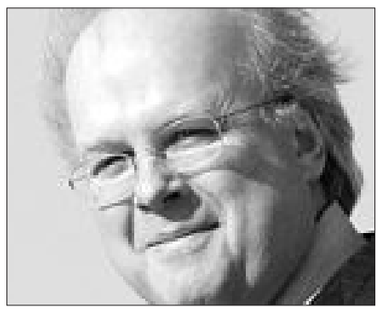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연방검사 해임 파문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부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브 고문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법률보좌관, 카일 샘슨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 등을 불러 증언하도록 하는 소환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미 상원법사위도 22일 소환권 발동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로브 고문 등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 소환돼 검사 해임 파문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측이 백악관 참모들의 공개 증언을 밀어붙일 경우 법정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공언, 의회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부시 정권 권력서열 3위…선거의 귀재

■부시 오른팔 칼 로브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숨은 실권자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이 다시 치열한 정치공방의 한 가운데 섰다.

부시 대통령의 두차례 집권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로브 고문은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에 이어 3번째 권력자로 꼽힐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해온 인물.

공화당 내에서 그는 정권을 창출해낸 최고의 지략가이자 선거 귀재로 통하지만 민주당측은 그를 부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농단한 ‘더러운 책략가’라고 비난해왔다.

백악관 부실장을 지내며 정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로브 고문의 비행이 처음 세간에 노출된 것은 ‘리크 게이트’를 통해서였다.

로브는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 때도 연루 사실을 시사하는 이메일이 공개돼 의혹의 대상이 됐으나 큰 탈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그가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사건에 개입했다는 물증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제 그는 의회 청문회에 강제소환될 위기에 처했다. /워싱턴=연합뉴스